

PUBLICATION MENSUELLE GRATUITE

Des Coréens de Paris et de Séoul

paraissant le 1 월 1회 발행 무료

NO. 136 1, AVRI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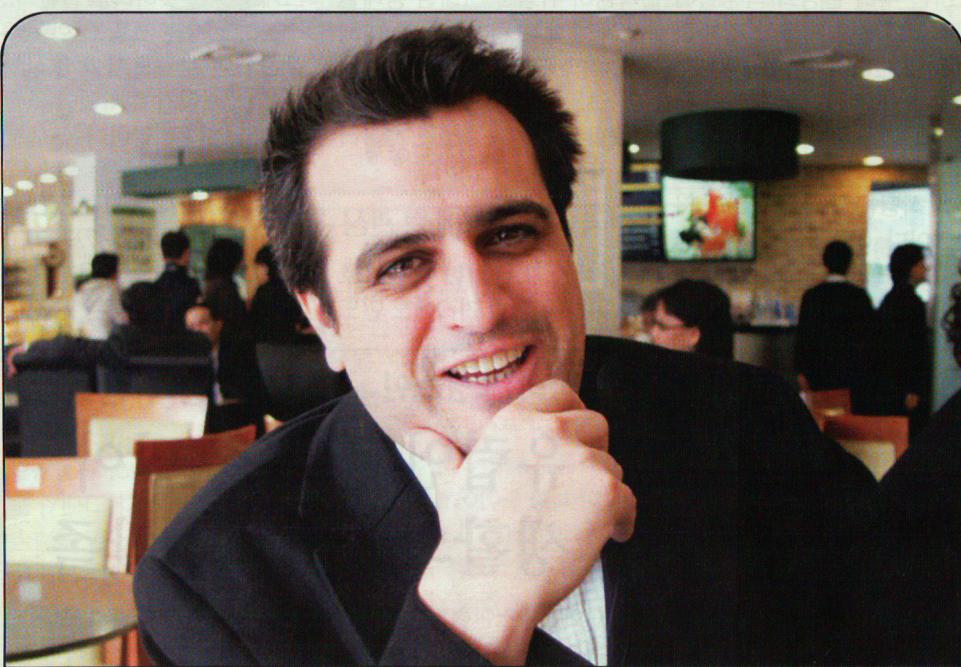
12, rue Dupetit Thouars 75003 Paris

TEL : 01 4277 4977 FAX : 01 4277 4979

URL : oniva82.com e-mail : oniva@noos.fr

Dépôt légal : 94/0262 Imprimé en France

responsable de la publication : KIM JE-WAN



한국인 '정'에 이끌린 프랑스 사나이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든 백
명만 넘으면 한인회를 만든다. 150여개국에

씨등 프랑스 출신의 이름도 보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즉석인터뷰를 청했다.

갤러리 오니바에서 내일의 작가를 찾습니다

갤러리 오니바는 재불한인작가들을 위한 문
화공간으로 96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빠리의 전문화랑가인 마레와 뽐피두지역 중
간에 위치해 있으며, 국립응용미술학교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계절의 짙은 정취를 느끼게 하
는 이 거리에서 전시를 계획해 보십시오.

Galerie oniva 문의 Tel. 01 42 77 49 77

노대통령 "대선때 실현될 수 있을것"

해외부재자투표 실시한다

지난 6일 미주, 캐나다 한인
회총연합회가 동포 참정권 회
복을 위한 헌법 소원을 제출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독일 방문 중에 다음 대선
부터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실시
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노 대통령은 독일에서 가진
동포간담에서 “해외에 일시 체
류중인 주재원이나 학생 등 100
만여명은 곧 절차와 방법이 가
능한 범위내에서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 때쯤이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완전히
태양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
다”면서 “대개 어느 나라나 국
적을 하나만 갖도록 제도를 갖
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국민
들에게 대한민국 투표권을 행
사하도록, 국민 권리를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
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해외국민들은 한국에서는
물론 현지에서도 투표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OECD 가입국
가 뿐 아니라 얼마전 이라크도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김재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법률고문,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이주하
회장 등 5명이 선거법 38조가
해외국민 선거권을 침해, 헌법

걸쳐 한인회는 그 숫자만도 1천개가 넘는다. 프랑스인들도 이와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재외프랑스협회(ADFE)라는 단일한 조직이 있고 각나라 각도 시에 분회가 있다는 점이다. ADFE는 1980년에 한국분회는 지난 96년 만들어졌다.

벤자맹 조아노씨는 재외프랑스인협회 한국분회 회장이다. 그가 지난 3월15일 종로경찰서 부근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 새터민(탈북자의 새이름) 돋기 운동의 일환으로 '남남북녀'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전시회는 3월21일부터 나흘간 평창동 가나화랑에서 열렸다.

출품작은 시가의 50%에 판매하며 전액 새터민돕기 기금으로 사용된다. 작가 80명이 참여했는데 이중에는 4명의 음악가와 시인도 포함돼 있다. 참여작가중에는 이응노 홍순명

조아노씨는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부근에 있는 프랑스이름의 빵집에서 다시 만났다. 이른 봄의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서울에 사는 프랑스인들은 무얼 하고 사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기자의 주요한 관심이었다. 그는 한 시간여동안 유창한 한국말로 설명했다.

벤자맹 조아노씨가 한국에 온 것은 94년으로 올해 10년이 넘었다. 프랑스 징병제도에는 군입대해서 8개월을 복무하는 대신 18개월동안 대체복무하는 제도가 있다. 그는 서울프랑스학교 교사를 자원해 1년반 근무하고 병역을 필했다.

그뒤 프랑스인에게 없는 한국인의 특유한 '정'에 끌려 한국에 남게됐다. ▶2면에 이어짐

사진: 재외프랑스인협회 한국분회 벤자맹 조아노 회장

해외에 주디학교 사는 승호를
에게 참정권을 주게 되면 외교
다.
관련 기사 4면

프 휴일 반납 노동에 66% 반대

프랑스 정부는 1년전 다수의 노인을 포함한 1만여명을 숨지게 한 폭염사태에 대비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성신 강림축일 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올해는 5월16일), 이날을 '연대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CSA와 르 빠리지엥이 공동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가 공휴일 제외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자유업자나 의회 의원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급여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이라고 하며 정부를 빠리행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국철 SNCF는 16일을 휴일로 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해 본 뒤 존속 여부를 가리자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유럽헌법 국민투표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내부적으로는 크게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자맹 조아노 ▶ "두 남자, 프랑스 요리로 말을 걸어오다" 책 펴내

프랑스학교 교사로 왔다 11년째 머물러



지난달 북한 새터민 돋기 일환으로 '남남북녀' 전시회를 열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아노 회장

▶ 1면에 이어서

한국어 유창 토론도 가능

정(情)을 불어로 무어라고 하는가고 둘자 '아페시옹...' 하더니 이내 알맞는 단어가 없다고

월간지 'NEXT' 지에 격월로 한국 주제의 칼럼을 기고하며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에 한국 문화를 주제로 석달동안 연재를 시작했다.

'두남자...' 책 펴내 선풍

템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을 잘 관찰해보면 월학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하긴 우리 일상의 식생활이 외국인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게 보일 만하다. 조아노씨는 이에 머물지 않고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할 줄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식인이다. 동시에 식당을 두개 경영하는 사업가이다. 이런 양면성은 식당을 내고 그 경험을 책으로 펴낸 것에서 잘 드러난다. 5년전에 이태원에 낸 프랑스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프랑스 요리와 문화에 대한 책을 펴냈다. '두 남자, 프랑스 요리로 말을 걸어오다'라는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되자마자 한국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식당 이름은 작가 생뻬취베리의 애칭인 르 생텍스 Le Saint-Ex로 정했다. 장사가 잘되자 길건너에 라 플란차 La Plancha라는 식당을 하나더 냈다. 코리아타운에 한국식당이

저술과 기고 활동때문인지 그의 한국어는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특히 그의 식당이 위치한 이태원 동네를 소개할 때는 말에 힘이 들어갔다. 이태원이 한자로 '異胎院'인 것도 그리고 조선시대때부터 외국인이 거주하던 곳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한국 문화 음식에 큰 관심

생텍스가 위치한 해밀턴호텔 뒤편, 비탈진 거리에도 인도

네시아 태국 그리스 중국식당 등이 몰려있다. 이 동네는 잠재적인 가능성성이 크다며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아노씨는 프랑스 와인의 주산지인 보르도지방 출신이다. 그래서인지 주저없이 자신이 술꾼이라고 말한다. 69년생 이므로 서양나이로는 올해 35세나 36세이지만 그는 스스로 없이 '한국나이로 37세'라고 말한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김제완 편집인

한국의 프랑스인

현황과 생활상

유럽인 중 가장 많아 생활의 질 높아 만족

재외프랑스인협회(ADFE) 한국지부 회원인 한국거주 프랑스인은 1500명에 이른다. 서울거주 외국인중에는 미국 중국 일본인 다음으로 네번째이며 유럽인중에는 가장 많다. 그중에 1천여명이 상사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대학과 학원의 교수 강사들이 100명 정도, 나머지는 공관원 등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하다.

병역을 마친 뒤 알리앙스프랑세즈와 흥익대 불문과에서 5년동안 불어와 라틴어를 강의했다. 그사이에 틈틈이 개인교습으로 한국어를 배웠다. 지금은 고급의 한국어를 구사할 정도가 됐다. 기자회견때 간단한 프랑스 말은 직접 한국어로 통역하기도 했다.

현재 파리 사회과학대학원 (EHESS) 인류학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다. 논문 주제는 일제시대 한국 시에 나타난 한국의 상상구조.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관련 주제를 한국의 대학이 아닌 프랑스대학에서 논문을 쓰는 것이 이색적이다. 그는 중앙일보에서 평내는

새로 준비하는 연재는 어떤 주제인가 프랑스와 한국의 요리를 비교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느릅나물의 쓴맛은 프랑스 요리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맛에서 그는 무언가 의미있는 문화적 해석을 찾아낼수 있다고 말한다. 파란 느릅나물을 빨간 고추장에 찍어 먹는 색깔의 보색대비 같은 것에도 주목한다.

그리고 매운 고추를 심심한 밥과 함께 먹는 것도 음양의 조화로 설명한다. 이것이 그에게는 고차원의 웰빙으로 해석된다. 요리에 대한 생각이 많은듯 요리가 가장 좋은 문화적 아이

있고 차이나 타운에 중국식당이 있듯이 프랑스인들이 밀집해 사는 방배동 프랑스인타운에 식당을 낼 만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문화적 계통’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로 대신한다. 그가 원한 것은 한국과 프랑스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조아노씨는 서울에 와서 10년넘게 생활하면서 프랑스인 회 회장과 식당 사장등의 신분을 얻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책을 평내고 주요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소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등 서울에서 활동은 아주 왕성하다.

한국거주 프랑스인들은 소득수준이 높으면서도 연 대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조아노 회장은 말한다. 평소에 해왔던 이웃돕기 수준을 넘어 이번에 탈북자 돋기운동에까지 나아간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프랑스인 타운으로 알려진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대부분이 거주하며 성북동 한남동에도 일부가 거주한다. 일부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도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인사회를 보니 1천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네덜란드는 동포사회가 연상된다. 네덜란드는 물류거점으로 중계무역이 성한 곳이어서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그래서 동포사회의 대다수가 상사원 출신이다. 대부분이 무역에 종사하고 소득도 높다.

98년 프랑스기업의 한국러시 이후 거주인 숫자가 급증한 것 아닌가고 물었다. 조아노 회장은 자신이 도착했던 94년에 이미 1천명에 이르렀으며 지금은 불과 500명이 늘어났을 뿐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이다.